

# 미래의 발목 잡는 17세기 서양동화들

인종차별의 가치관 그대로... 원작의 마구잡이 줄임도 문제

이주영

서울 성자초등학교 교사

책이 한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속해서 살아가는 사회에 끼치는 큰 영향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보기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책에 의한 변화다. 나쁜 책에 의한 변화는 대부분 묻혀버리고 만다. 그것은 좋은 책에 의한 변화는 성공과 발전으로 나타나고, 나쁜 책에 의한 영향은 실패와 좌절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 나쁜 책에 파묻힌 어린이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곧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책이 나쁜 사람을 만든다’

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혀야 함은 너무나 분명한 이치이다. 그런데 오늘의 어린이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책을 더 많이 읽고 있는가를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아직도 어린이들이 나쁜 책을 더 많이 읽고 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1980년 이후로 5년에 한번씩 전국 교사·학부모·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권장하는 책을 조사한 것이다. 그동안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명작류 책들이 우위에 있다. 서점에도 세계명작류 책들이 훨씬 많고, 해마다 학년 초면 어린이들이 가져오는 책으로 마련하는 학급문고에도 세계명작류들이 판을 치고 있다.

세계명작류란 《보물섬》, 《로빈슨 크루소》, 《소공자》, 《소공녀》 따위의 책들로 주로 17세기부터 20세기 이전 서구 열강들이 팽창하던 시기에 유럽에서 나온 책들을 말한다. 이 책들이 왜 문제인가? 왜 이런 류의 책을 현대 어린이들이 많이 읽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가?

## 2,3세기 이전의 책들

첫째는 시대성의 문제다. 지금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시대다. 그런데 세계명작류는 거의 모두 2~3세기 전, 그 시대에 필요한 꿈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한 책들이다. 이미 지나간 시대의 꿈을, 지금은 이미 꿈이 될 수 없는 내용의 책들이다. 해적의 보물로 일확천금을 하고, 아무 땅이나 자기네 땅이라고 깃발을 꽂던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나갔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책들을 세계명작이라고 어린이들한테 계속 읽기를 권장하고 있다.

둘째는 지역성의 문제다. 현대는 지구촌

세계명작류들이 어린이들 주위에 널려 있다. 유럽 중심주의, 열강 패권주의, 인종 우월주의 등 2,3세기 전 시대 가치관을 담은 책들을 아직도 우리는 비판없이 읽고 있다.

5대양 6대주가 공존하는 꿈을 향하는 시대다. 그런데 세계명작류는 모두 유럽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책이다. 유럽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던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무조건 읽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 있다.

이제는 유럽이라는 한 지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 뿌리를 둔 책들이 필요하다.

셋째는 인종편견이다. 《로빈슨 크루소》에서는 원주민을 식인종으로, 기독교로 개종되어 백인에게 진심으로 순종하는 노예를 개화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 원주민이란 황인종이나 흑인종임이 분명하다. 세계명작류의 대부분 책들이 백인은 우월하고 백인이 아닌 인종은 열등하다는 의식을 심어주기에 좋다. 이런 동화를 많이 읽을 수록 황인종인 자신과 이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흑인을 멸시하게 된다.

넷째는 침략성이다. 우리 전통 도덕은 도독질한 물건을 주워 가져도 똑같은 도둑으로 본다. 그런데 세계명작류에서는 해적의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신임 사무국장 전영순씨.



탐방

## 어린이책 문화의 등대

좋은 책을 연구하는 모임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 문화를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 좋은 책을 연구하는 모임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장 오춘식)가 올해로 창립 16주년을 맞았다. 교육문화 운동 단체로는 꽤 긴 역사를 가진 셈이다.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처음 출발할 때는 어린이 책 대부분이 전집류였습니다. 좋은 책 나쁜 책이 뒤섞여 있는 전집류 가운데서 좋은 책을 골라 아이들에게 권해 주고 싶었지요.”

4대 사무국장을 맡은 전영순씨(39)의 말이다. 어린이도서 출판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는 요즘이라고 해서 어린이도서연구회가 한가한 것은 아니다. 우리 정서를 익히기도 전인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책보다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에 더 친숙한 아이들,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책보다는 학교 성적을 1점 더 올릴 수 있는 책을 고르는 부모들이 있는 한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했수를 더하는 동안 하는 일의 가치수도

늘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한 달에 한번씩 어린이 신간을 읽고 좋은 책을 가려내는 일이지요.”

어린이도서연구회의 핵심을 이루는 연구분과는 총 13개로 구성돼 있다. 책 종류에 따라 그림책, 옛이야기 연구, 청소년 책 분과를 비롯, 독서지도의 방법론과 좋은 책을 고르기 위한 동화창작, 어린이 문학사, 동화비평, 독서지도 연구, 어린이 독서지도의 방법론을 연구하는 분과가 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 공부하고 그 결과를 한달에 한번씩 《동화 읽는 어른》, 《마음을 살찌우는 글읽기》란 책으로 묶어낸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금도 여전히 낮은 가치관을 담고 있는 책이 '세계명작동화'로 읽히고 있다.

물건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가 된다. 그 해적의 보물이란 바로 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를 침략해서 착취하고 약탈한 것이다. 일제가 명치유신 이후에 침략성을 기를 수 있는 이러한 책들을 모아서 세계명작이라고 소개하고, 우리가 그대로 번역해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지금도 아무런 비판없이 읽히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마구잡이 줄임판이다. 올해 1학년을 담입하여 학급문고를 마련하려고 가정 에 있는 책 가운데서 몇 권씩 가져오도록 했다. 그 책의 대부분이 세계명작류를 마구잡이로 줄여쓴 책들이다. 마치 용문산 은행나무를 마구잡이로 잘라서 화분에 꽂아놓고 "이것이 바로 용문산에 있는 커다란 은행나무"라 보여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마구잡이식 줄임판은 원작이 아무리 좋더라도 결코 좋은 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물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책을 아무런 기준없이 줄였을 때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을 보태는 꼴이다.

우리 겨레의 미래를 맡겨야 할 오늘의 어

린이들에게 어떤 책을 추천해야 할까는 곧 21세기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와 맞물리는 과제다. 21세기라는 새로운 사회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명작을 골라 추천하고,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책을 출판하는 풍토가 자리잡아야 한다.

#### 새로운 세계관 담긴 명작 추천해야

2,3세기 전시대의 꿈이 아니라 현대 인류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꿈을 제시하는 책, 한 지역과 인종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5대양 6대주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 침략이 아니라 인류와 자연이 공존해야 한다는 정서와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책, 원작의 향기를 온전하게 맛볼 수 있는 책을 추천해야 한다.

이러한 책을 출판하고 유통시켜서 겨레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21세기 문턱에서 있는 이 시대의 학부모·교사·출판인들이 져야 할 책임이다. ❖

“지역별로 ‘동화를 읽는 어른 모임’을 활성화시켜 학부모들이 아이들 독서지도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부모들이 모이기 때문에 효과가 높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지도 강연회나 어린이 전문서점 운영에 대한 자문 역할, 연말에 다달이 만들어낸 두 권의 책자를 바탕으로 두툼하게 어린이 추천도서목록을 만들어 자료회원이나 단체회원들에게 배포하는 일은 독서운동을 널리 퍼뜨리는데 톡톡히 헌뒀 거든다. 특히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단행본으로 묶어낸 책이 어느새 22종에 이른다. 최근 펴낸 《동화, 이렇게 보세요》는

어린이에게 유익한 책을 고르는 지침을 담았다.

순수한 뜻으로 시작해서 16년간 이끌어 오느라 그간 좁고 좁은 사무실에서 고생도 많았다. 올 2월에는 어느덧 140명에 이르는 회원들 덕분에 겨우 그럴 듯한 사무실을 마련했다.

창립일이기도 한 이번 어린이날에는 교대와 전교조 등이 주관해 양천구 파리공원과 노원구 중계동의 마들공원에서 펼쳐지는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행사에 그간 선정한 좋은 책을 전시·판매하는 ‘어린이도서 전시회’를 준비하느라 5월이 바쁘기만 하다. —이현주 기자

## 어제, 펫 매시니의 재즈 기타에 취했었다면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理性에 빠져보는거야!

자유로운 理性을 위한 과학교양서, <사이언스 마스터즈>

감성만 자유롭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면,

理性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이언스 마스터즈—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理性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에서 우주의 미래까지

세포의 진화에서 성의 진화까지—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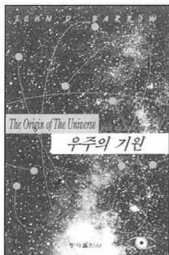
진정한 자유인이 되십시오.

####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 22권



**① 에덴 밖의 강**  
유전자본 진화의 메커니즘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 분리하는?  
리처드 도킨스 지음

**② 마지막 3분**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혜성과 지구가 부딪친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③ 우주의 기원**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코비위성이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팽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④ 인류의 기원**  
화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이야기  
인류는 과연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라키 지음

**⑤ 원소의 왕국**  
물질의 핵심에 대한 본격 해부  
어떻게 주기율을 통해 우주 만물을 이해할 것인가? 물질의 핵심으로서의 신나는 여행이 될 것이다  
피터 앳킨즈 지음

동아출판사  
영입 (02)861-4818 / (02)853-5608

정가: 각권 6,800원  
\*계속 발간 됩니다.